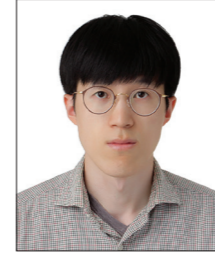


기고

###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김규식 국가보훈처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한일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여름인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였다. 우리 해군 고속정 4척은 교전수칙대로 대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6명이 전사하였고 18명이 부상당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 남서쪽 약 1km 지점에서 초계임무 수행 중이었던 천안함이 북한 해군 잠수정 어뢰에 공격당해 선체가 침몰되어 46명이 전사하였다. 2011년 11월 23일에 연평도에 포격이 가해졌다. 정전 협정이래 최초의 민간 거주 구역에 대한 포격이었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였다.

'제 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55명의 용사들이 서해를 수호하다가 전사하였고, 정부는 이들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전사자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사건 일을 기준으로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위 사건이 일어났던 연평도와 백령도는, 6.25전쟁의 정전협정 당시에 북측에 양보하지 않고 유엔군 사령부 예하로 편입되었다가 이후 대한민국 영토로 반환된 섬으로 대청도, 소청도, 우도도 함께 서해 5도로 불리는 서해안 최전방의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로도 한반도 내에 긴장관계는 계속되었고,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해왔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휴전중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이런 군사적 긴장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북방한계선이 맞닿아있는 최전방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55인의 서해수호 용사는 이 나라의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다가 전사하였다. 그들이 있었기에 서해가 수호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평가가, 우리들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 땅의 누구도 그들에게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는 없다. 그 빚을 조금이라도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서해를 수호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서해수호 용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이 나라에 대한 충성과 희생에 대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 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하고, 그들로 인해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나아가 지금도 최전방에서 서해를 수호하고 있는 국군장병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 스키야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시간과 돈을 벌고, 사람을 벌고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벌고 번다는 것은 인간이 움직이고 노력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느님께서 똑같이 주어졌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처럼 자동 소모가 된다. 생산된 전기는 일하고 소모되어야 하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도 어떤 일을 하고 소모되어야 한다.

돈은 가치의 척도이면서 저장의 수단이기도 하다. 인간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 부자가 되려면 시간을 아껴 쓰고 일을 하여 대가성 있는 것으로 바꾸면서 소모해야 한다. 하루란 시간에 어떤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남을 것이지만 일을 않고 보냈다면 낭비의 시간이 된 것이다.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은 잘못 사용했을 때 하는 말이다.

시간이란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일 년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하루 동안 일하려면 시간을 벌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 두 시간에 할 일을 한 시간에 했다면 한 시간을 벌 것이다. 인간은 집 밖에 나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데 일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만남을 통해 사람을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가게를 차려놓고 오는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장사꾼이 있는가 하면 오는 손님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 몇 년이 지나면 돈을 벌 가게는 손님이 줄어들지만, 사람을 벌 가게는 단골손님이 생겨 번창하게 된다. 사람을 번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이웃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 돈을 벌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다. 사람을 번다는 것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남이 없으면 사람을 벌 수 없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다. 만나는 사람은 많지만 내 사람이 없음을 뜻한다. 커피숍도 동심원을 여러 개 그려 중심은 나라고 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기록해 보면 혈연관계로 가까운 사람, 지연 관계로 가까운 사람, 학연 관계로 가까운 사람, 직장과 직업 관계로 가까운 사람, 사회적 만남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와 그 사람들은 서로 알고는 있지만, 진정한 내 사람은 아니다.

가까운 친구 만들기 원리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상대를 만나서 도움 주는 일을 하고 있어야 가까워지며 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젊어서는 돈을 버는 데 주력해야 하지만, 노년에는 사람을 버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사람을 버는 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날마다 일과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도움 주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심적으로 가까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일가친척이 많지만, 만남이 없으면 남처럼 멀어지나 비록 남이지만 날마다 자주 만남이 있으면 사촌처럼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나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며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사람을 버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인생의 노년에 할 일이다.

사람을 버는 원리는 만남에서 이루어지며 무엇인가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어떤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며 직접 만남과 통신 매체를 통한 간접 만남이 있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의 노년은 젊어서 시간 투자를 잘 하여 벌여 놓은 돈과 재산이 많아지며 나와 만남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진정한 내 사람이 되도록 사람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여 '군중 속의 고독' 같은 불행이 아니라 인맥의 풍요 속에서 사는 노년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인생은 돈과 재산보다도 진정한 내 사람을 많이 벌어들여서 노년을 풍요롭게 살다 가는 것이다.

기고

### 건조한 봄철, 임야화재 주의

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준영



을 없애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병해충을 잡아먹고 사는 천적을 제거한다고 한다. 이런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논밭두렁을 태우다 대형산불로 이어지곤 한다. 위험한 소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므로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임야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 화재안전지킴이 봉사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 밀집 마을에 주택화재예방 가두방송 실시, 화재 없는 안전마을 등 마을회관 방문교육, 이장단 회의 시 홍보물 배부 및 교육, 전광판과 반상회보 등 인프라를 활용한 소각 금지 홍보 등을 추진하며 임야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임야화재의 위험성을 알고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허용범위 외 취사금지 등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우리의 모든 걸 앗아 갈 수도 있다. 이에 국민들도 안전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틈틈이 주변 화재 위험을 살펴보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논과 밭두렁 소각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임야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고, 들과 산이 메말라 있어 화재발생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건수는 총 786건이다. 계절별로 보면 봄철472건, 여름철 157건, 겨울철 79건, 가을철 78건 순으로 봄철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봄철 화재는 임야, 야외 등 실외에서 많이 발생해 산으로 불씨가 옮겨붙는 경우가 많다. 임야화재 인명피해는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쓰레기 소각이나 논과 밭을 태우다가 연소가 확대되어 무리한 자체 진화로 발생한 건이 73.6%를 차지한다.

이렇게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가 화재 주원인이 되고 있고 인명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위험한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잘못된 상식으로 해마다 봄이면 농촌에서 병해충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논·밭두렁 소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만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